



만성·희귀난치성질환 어린이들이 만든 특별한 가을 소풍, 2017 초록산타 상상놀이터 ‘오감 피크닉’ 성료

- 초록산타 상상놀이터, 9 일(토) 잠원한강공원 잔디광장에서 성황리 개최
- 초록산타 상상학교에 참여했던 만성·희귀난치성질환 어린이들이 8 주간 갖고 닦은 결과물 발표
- 다섯 가지 이상의 즐거운 감각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소풍 컨셉으로 진행

2017년 9월 11일, 서울 -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Sanofi)의 제약사업부문인 주식회사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배경은, 이하 사노피)와 공익문화창출형 사회적 기업 ‘아름다운가게’(이사장 홍명희)는 (재)다음세대재단(대표 방대욱)과 함께 2017 초록산타 상상놀이터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9일 잠원한강공원 잔디광장에서 만성·희귀난치성질환 아이들과 가족,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난 8주간 초록산타 상상학교에 참가했던 아이들과 형제·자매, 부모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영상, 그림, 음악 등의 미디어로 표현한 결과물을 전시,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다양한 볼거리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 다섯 가지 이상의 즐거운 감각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소풍 컨셉으로 꾸며져 잠원한강공원 잔디광장을 찾은 시민들과 주말 나들이객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시각 체험은 초록산타 상상학교 수업 중 ‘드로잉 히어로’(자신을 소개하는 슈퍼히어로 그리기 체험)의 결과물을 전시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청각 체험은 상상학교 ‘랩을 나불나불’ 수업의 참가자들이 8주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랩으로 만들어 공연했다. 시민들도 현장에서 랩 가사를 만들고 녹음을 해보며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 함께 즐길 수 있었다.

▲촉각 체험은 상상학교 ‘그린 폴리 팝 스몰 티비(Green Foley Pop Small TV)’ 수업의 흥미진진했던 교육 현장을 공개하고, 영화의 특수효과, 뉴스·기상캐스터 영상에 활용되는 ‘그린스크린’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꾸몄다. ▲후각 체험은 자신이 좋아하는 향기를 활용한 천연 디퓨저 만들기 체험 ‘향긋향긋열매’, ▲미각 체험은 직접 간식을 만들어 가족, 친구들과 나눠먹는 ‘간식을 부탁해’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다섯 가지의 본 프로그램 외에도 포토존,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보물찾기, 볼풀존, 게임존, 물총놀이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의 장이 열려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상상학교 ‘랩을 나불나불’ 수업에 참여했던 어린이들과 지도를 맡았던 래퍼, 슬래&내토의 특별한 공연을 끝으로 축제의 장이 마무리됐다.

사노피 배경은 사장은 “올해도 ‘초록산타 상상학교’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공연과 작품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 뜻 깊었다”고 말했다. 또한 “상상학교의 정서함양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만성·희귀난치성질환 어린이들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사노피가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름다운가게의 이종욱 상임이사는 “초록산타 상상학교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 들을 때 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서 함양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실감한다”며, “특히 ‘초록산타 상상놀이터’는 상상학교의 결과물을 함께 즐기고, 시민들과 함께 초록산타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더없이 값진 시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13년부터 시작된 ‘초록산타 상상학교’는 만성·희귀난치성질환 질환 어린이들의 표현력 향상, 자존감 형성, 잠재력 실현을 돕고 정서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극, 미술, 글쓰기, 영상, 사진, 무용 등 다양한 장르를 주제에 따라 연결하고, 자신 안에 숨겨진 이야기와 가능성을 탐색하게 돕는다. 이를 통해 질환 때문에 위축된 마음에서 벗어나 자신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자신도 몰랐던 재능과 아름다움, 가능성을 발견하게 도움으로써 아픈 아이들의 건강한 자존감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초록산타>에 대하여



‘초록산타’는 만성·희귀난치성질환 환아의 정서함양을 지원한다. 2004년 출범한 ‘초록산타’는 세계적인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국내 제약사업부문인 주식회사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이하 사노피)가 후원하고 있으며, 국내 제약업계의 대표적인 장수 사회책임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아름다운가게와 협력하여 ‘초록산타 상상학교’를 통해 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사노피는 2011년 아름다운가게 강남구청역 매장(일명 초록산타점) 기증 및 정기적인 임직원 자원봉사 및 재활용 물품 기증을 통해 자원의 순환을 통한 환경보호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2013년에는 만성·희귀난치성질환 환아를 위해 우리시대 명사 100인이 추천한 <초록산타 아름다운 책장 100선>을 선정해 전국의 병원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환자 쉼터에 책장을 기증했으며, 서울시 내 7개 도서관에서 순회 전시를 진행한 바 있다.

사노피(Sanofi) 그룹에 대하여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노피(Sanofi) 그룹은 인간 삶의 개선을 위한 치료 솔루션을 연구, 개발 및 제공하는 세계 선두의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서, 파리 (EURONEXT: SAN) 및 뉴욕 (NYSE: SNY)에 상장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당뇨순환기사업부 (DCV), 전문의약품 사업부 (GEM), 스페셜티 케어 사업부 (사노피 젠자임), 백신사업부 (사노피 파스퇴르), 컨슈머 헬스케어 사업부 (CHC) 등 5개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노피(Sanofi) 그룹은 예방에서 치료까지, 전문의약품에서 건강기능식품까지 환자들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아름다운가게’에 대하여

아름다운가게는 공익문화창출형 사회적 기업으로 ‘모두가 함께 하는 나눔과 순환의 아름다운세상만들기’를 미션으로 하고있다. 물건의 재사용과 재순환을 통해 우리사회의 생태적, 친환경적 변화에 기여하고, 국내외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식 성장과 풀뿌리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325,251 명의 기증천사의 참여로 22,767,552 점의 기증품이 모였으며, 매년 14,500 명의 활동천사(자원봉사자)가 함께 하며 모두가 함께 하는 나눔과 순환의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있다.